

KCTPI 정책ISSUE 리포트  
2006.04.24 (제1호)

# 한·미 FTA와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논란에 대한 대비

## CONTENTS

FTA와 문화예술분야  
현황 및 논쟁 가능성  
대응방안  
참고자료

류정아 문화정책팀장  
02-2669-9839  
ryooja@kctpi.re.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장벽이 없어 국내 문화예술계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나, 시장조건에 따라 교역상황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한미FTA에 의한 문화다양성의 훼손 여부에 대한 검토와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내외적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한미FTA가 가져올 문화 전반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과 문화예술의 구체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정립을 위한 것임

## □ 현황 및 논쟁 가능성 부분

- 문화예술 분야는 양국간의 주요 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관한 일부 규정(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공연법 제6조, 제7조) 외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음
  -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함
- ※ 문화산업 분야를 보면, 음반 8%, 인쇄 8%, 영화 6.5%의 관세가 있고, 영화, 출판, 방송 분야에서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비율제한, 국내시장독점제한, 국내사업 시 추천/신고를 필요로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예술시장에서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스텝, 제작사 등의 자체적인 성장 토대의 악화, 창작의욕 상실, 미미한 공연수입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2004년 현재 외국 공연단체의 공연건수는 217건, 공연회수는 1,998회(국내 공연장 총 공연회수의 2.1%에 해당함)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북아메리카지역 공연단체의 국내공연은 24건, 73회임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인력 프로그램이나 인력풀은 빈약한 상황이므로 미국의 문화예술 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인력과의 경쟁이 생길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예능계열의 높은 교육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문화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산업 분야의 직접적인 영향이 특히 공연분야, 음반분야, 출판분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대응방안

-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문화예술계 역시 활동에서 위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문화예술진흥 정책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시장경쟁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허용의 문제와 문화예술창조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 재검토
    - ※ WTO가 따르고 있는 GATS 규범은 긴급 세이프 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등 개방의 제한 조치 또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인정
- 예술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함
  - ※ 국내 공연단체의 해외 진출공연 현황(2004년도 기준)을 보면 연간 180작품이며, 그 가운데 미국진출 공연은 24작품(13.3%)으로 나타남
- 다양한 문화표현 기제들과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기반 조성
  - 풀뿌리 문화정책의 추진으로 문화자생력 증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사회적 '문화안전망' 설치
  -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센터 등 기존 문화거점의 경영능력 향상 및 문화예술 저변층 확대
- 문화적 다양성,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간 또는 지역간 상호교류증진을 통한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문화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 문화관련 국제기구: UNESCO(UN Educate, Science, Culture Organization), UNDP(UN Development Programm), ASEF(Asian-Europe Foundatio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INCN(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등
- 각 국의 정부조직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예술가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국의 문화협력 기구를 만들거나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이를 각 국을 대표하는 문화협력단으로 수렴시켜 국가간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을 촉진시켜 상호 호혜적이고 발전적인 문화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범국가적, 민간차원, NGO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문화다양성 수호에 대한 국가간 대화를 촉진하는 기회를 기획함
- 국제적 문화교류와 다양성 존중의 관행을 축적하여 공유하고, 문화공공기관의 문화다양성 촉진과 유지 능력 향상 사업 추진
  - 신기술의 사용과 정보 공유를 통해 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킴
  - 공동생산, 공동유통협약의 체결을 촉진

□ 참고자료

〈국내 공연 단체의 해외진출 현황〉

순위	구분	합계	연극	국악	양악	무용	복합장르
	전체	180	28	54	38	45	15
1	일본	60	13	21	13	12	1
2	중국	45	3	18	9	10	5
3	미국	24	1	4	9	10	0
4	독일	13	0	9	3	1	0
4	러시아	13	0	3	3	3	4
6	호주	8	2	1	1	3	1
7	대만	7	2	3	0	1	1
8	영국	6	0	1	1	3	1
9	몽골	5	1	0	0	2	2
9	이탈리아	5	0	0	2	3	0
9	홍콩	5	1	1	0	1	2

자료: 문화관광부,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184쪽)

〈해외 공연단체의 국내 활동 현황〉

구분	합계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전체	217	1,194	1,998	
대륙권별	아시아	50	441	851
	유럽	122	646	1,017
	북아메리카	24	63	73
	남아메리카	7	17	25
	오세아니아	3	10	15

자료: 문화관광부,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104쪽)

※ 이러한 공연의 대부분은 국내의 공연장이나 공연기획사가 기획, 제작한 공연, 또는 국내 공연페스티벌 초청공연을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 공연단체의 직접 진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외적 국제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와 협력 활동 범주〉

기구명	협력 활동 내용
UNESCO(UN Educate, Science, Culture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가 최근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과하였고, 191개국의 회원국이 문화분야의 규범제정, 문화다양성 보호 및 문화와 문명 간 대화 증대, 역량강화와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한 문화와 발전간의 연계 강화라는 3대 중점 추진전략 하에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li> </ul>
UNDP(UN Development Progra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개발기구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문화산업의 영향력, 인간개발에 있어서 문화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함.</li> <li>- 따라서 개도국에 지적자본과 문화자본을 제공하는 UNDP사업 수행과정에서 문화다양성 보호를 주제로 개도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 공동으로 발언을 하는 등 연대 강화가 요청됨.</li> </ul>
ASEF(Asian-Europe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유럽재단은 양 지역간 지적교류와 인적교류 그리고 문화교류의 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출범되어 문화정책세미나, 회원국 젊은이들 간의 대화를 추진 중임.</li> <li>- 미래의 문화예술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문화정책 논의와 젊은 세대의 교류 시 양자간 FTA의 문화예술계에 미칠 단기적, 중장기적 효과등을 논의 테마로 제안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FTA 상대국에 의해서 손실될 자국과 타국의 문화정책성과 문화고유성에 대한 의식교육의 확산과 대응책 구상.</li> </ul>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경제발전의 변수로서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부속기구(예: 교육연구혁신센터)들을 만들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li> <li>- FTA가 문화예술계에 끼칠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OECD의 다양한 민간자문기구나 부속기구 등을 통해 발언하고 지원세력을 규합할 필요가 있음</li> </ul>
INCD(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에 있어서 세계화의 획일화 경향에 반대하는 예술가와 문화단체의 세계적 네트워크로 방송, 출판, 음반, 순수예술, 영화 등을 망라한 500여개 문화단체와 예술가(70여개국)가 가입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 회원제 조직임.</li> <li>-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 다양성 이슈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통상 협상에서 문화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FTA의 문화예술계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며 대응력도 뛰어난 국제기구임.</li> </ul>
CCD(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문화전문가단체 회의는 문화예술분야의 90여개국 600여 전문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주로 우리나라의 KCCD를 포함한 11개국 연대로 구성된 CCD 국제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됨.</li> <li>- '문화와 문화상품은 자유무역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는 최종선언문을 2003년에 통과시키는 등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li> <li>- 따라서 우리는 FTA와 관련된 모든 문화예술계의 문제점을 CCD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문제점을 축소하고 긍정적 요인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함.</li> </ul>
기타 문화예술계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N(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ets, Playwrights, Editors, Essayists and Novelists), ITI(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PA(International Publish Association)</li> </ul>